

시판 올리브유에서 벤조피렌 검출

안명옥 의원, 1296개 중 133개서 유해물질 나와 ... 기준설정 급선무

웰빙식품으로 각광받으며 시판되고 있는 올리브유 제품 가운데 다수에서 발암 물질이 검출되고, 성장기 어린이들이 섭취하는 영유아식에서도 중금속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9월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6년 유해물질 선형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 41종 1296개 식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133개 제품에서 발암물질, 중금속, 식중독균 등 각종 유해 물질이 검출됐고, 기준을 위반한 부적합 건수는 16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판되고 있는 올리브유 제품 30개 가운데 9개 제품에서는 강력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Benzopyrene)이 적게는 kg당 0.03 μ g에서 많게는 3.17 μ g이 검출됐다.

벤조피렌에 대해서는 현재 규제기준이 별도로 없고, 다만 식약청이 권고 기준으로 kg당 2 μ g을 제시하고 있다.

국내 한 유명 식품기업인 A사의 올리브유에서는 kg당 3.17 μ g의 벤조피렌이 검출돼 식약청 권고기준을 훨씬 넘어서며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식약청은 관련 제품 수거에 나서 현재 95% 가량을 회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젤리류 식품 60개 가운데 3개 제품에서 역시 발암물질인 사이클라메이트(Cyclamate)가 23-771ppm이 검출돼 모두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계란, 메추리알, 오리알 제품 61개 가운데에서는 10개에서 인체의 내성을 약화시킬 수 있어 검출돼서는 안 될 항생물질인 엔로플로삭신(Enroloxacin)이 0.011-0.1ppm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식 19개 제품 가운데 6개에서는 중금속인 카드뮴이 0.014-0.05ppm이 검출됐다.

현재 국내에서는 카드뮴에 대한 별도의 규제기준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명옥 의원은 “국민의 식탁에 자주 오르는 식품에서 발암물질이나 중금속이 검출됐다는 점은 충격”이라며 “유해물질이 검출된 식품들 가운데 현재 유통되고 있는 식품을 즉각 회수하고, 아직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제품들에 대해서는 즉각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저작권(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09/22>